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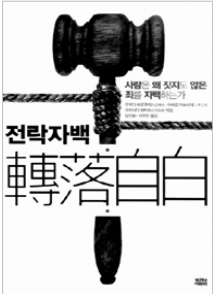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슬픈 거짓말 “내가 범인이요”

전락자백

우치다 히로후미 등 지음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지난 1992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범인이 아니었다. 진범이 자수해 1994년 대법원에서 이 남자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남자는 검거 당시 경찰이었다. 범인을 잡는 게 직업인 경찰마저도 자신이 ‘범인’이 되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거짓 자백할 수 있다.

책을 소개하기 전, 통계 하나를 먼저 살펴보자. ‘한국의 첫 오피스 연구’로 인정받은 김상준 판사의 논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95년



부터 2012년까지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강력범죄 사건 540건 가운데 31.5%가 허위자백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DNA 검사로 진범이 아니라고 밝혀져 면죄를 받은 303명의 경우 27%가 거짓으로 범죄를 자백했다. 미국 미시간대학 로스쿨 새뮤얼 그로스 교수가 2012년 6월 오피스레 873건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중 15%가 허위자백 탓이었다.

일본 고베가쿠인대학 우치다 히로후미와 변호사 아히로 미쓰히데 등이 함께 쓴

‘전락자백’(轉落自白)은 거짓 자백을 이야기한다.

일본에는 억울한 죄를 풀어주는 설원(雪冤) 프로젝트가 있다. ‘설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형사법학자, 심리학자, 변호사들로 구성된 ‘진술증거 평가의 심리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회’는 3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했다.

책은 실제 발생했던 네 건의 대표적인 원죄사건을 형사 절차와 심리학의 두 측면에서 연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시카가 사건, 도야마히미 사건, 우쓰노미야 사건, 우와지마 사건 등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통해 자백의 문제를 꼬집는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들의 사례를 통해 거짓 자백으로

전락하는 특징을 8가지로 분석한다.

일상생활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타자에 의한 지배와 자기통제감이 상실되면서 거짓 자백이 일어난다. 또 장기간의 정신적 굴욕이나 취조관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도 피의자가 취조과정에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되는 심리적 배경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짓 자백 강요와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형사재판이 개선돼야 한다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과거 1990년대까지는 폭력에 의한 허위 자백이 많았으나 2000년대에는 회유와 유도 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밝혀낸다.

실제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자. 1990년

요즘세상

고문도 하지 않은데

거짓자백은

왜 하는걸까?

①일상생활로부터 격리

②타자에 의한 지배

③자기통제감 상실

④장기간의 정신적 굴욕

⑤취조관이 자신의 말 들어주지 않아서

거짓 자백 강요·피의자 인권침해 ... 형사재판 개선돼야

일본 도치기 현 아시카가 시에서 4세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발견 현장 근처에서 정액이 묻은 여자아이의 반소매속옷을 발견했고, 유지원 버스 기사 A씨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그의 체액이 묻은 티슈를 입수해 DNA를 비교분석해 2개가 같은 형이란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지만 끝내 자백했다. 이후 공판에서 범행 부인과 자백을 반복하던 그는 여자

아이의 속옷에 묻은 정액 DNA와 자신의 것을 재감정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2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가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 17년을 허비해야 했다.

저자들은 “수사과정 영상 녹화와 국민 참여재판 도입 등 형사재판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뿌리와이파리·1만8000원>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홍차·비틀즈·2층버스·축구...

골목 구석구석에 주름처럼 새겨진

2000년의 긴 역사 돌아보기

런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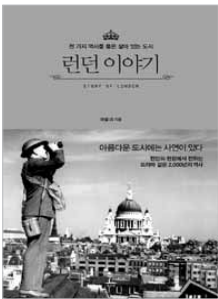
미셀 리 지음

홍차, 비틀즈, 2층버스, 축구, 해리포터, 영국 신사, 세인트 폴 대성당, 노팅 힐, 피쉬엔칩스 그리고 역사..... 런던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그만큼 ‘런던’이라는 단어에는 다른 도시와는 다른 미묘한 동경과 낭만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셀 리가 펴낸 ‘런던 이야기’는 유럽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출발해 세계로 뻗어나간 대영제국 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런던이 품은 2000년의 길고 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천 가지 역사를 품은 살아 있는 도시’라는 부제처럼 아름다운 도시 런던에 담긴 빼곡한 ‘사연’들이 펼쳐진다.

저자는 “런던은 로마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충돌하며 세계로 확장되었던 특별한 공간”이라고 말하며 골목 구석구석에 주름처럼 새겨져 있는 런던의 ‘진짜



역사’를 찾아나섰다. 대영제국과 산업혁명에서부터 미니스크트까지 저자가 직접 발로 걸으며 간접적으로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이 세세하게 설명돼 있다.

“전후 우울함을 벗어날 수 있게 ‘새로운 패션에 돈을 쓰자’라는 사교방식이 생겨, 패션 매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남자들은 당시 모드족의 최신 패션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소호 근처의 카니베스트리트로 몰려들었고, 킹스 로드에서는 메리 퀸트의 미니스크트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장발과 미니스크트의 시대)

책의 말미에는 ‘런던 타워’나 ‘웨스트민스터 사원’, ‘국회의사당’, ‘세인트 폴 대성당’ 등 런던의 명소들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별책 부록처럼 실렸다. <추수밭·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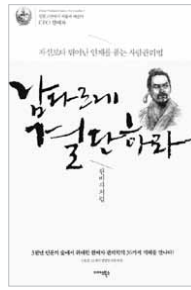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프로이트 패러다임=무의식, 억압, 성욕,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환상, 나르시시즘, 죽음 충동 등 프로이트가 제시한 모든 정신분석 개념들은 완결된 개념이 아니라 그의 사유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의 구성 요소들이다.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프로이트 패러다임’은 프로이트의 저술 속에 들어 있는 패러다임들을 프로이트의 분석 경험 속에서 이해하며, 이를 통해 프로이트에 관한 새로운 독법을 선사한다.

<위고·1만5000원>

▲남다르게 결단하라, 한비자처럼=“인재를 모아서 세상을 평정하라!” 춘추 전국시대에 활약한 제자백가 가운데 한비자처럼 방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없다. 엄청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짜임새가 있고 논리적이다. 한비자는 리더가 인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적대적소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책은 3000년 인문고전의 숲



에서 나온 한비자의 사람관리학을 담고 있다. <미다스북스·2만원>

▲맥아더=군인 맥아더, 인간 맥아더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책이다. 맥아더를 아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맥아더가 가장 복잡한 인물이었다”고 말한다. 군사적 천재, 뛰어난 지략가,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가진 군 지휘자 vs 전쟁광, 불복종의 대명사, 과대망상증 환자, 오만한 사기꾼... 저자는 맥아더에 대한 극과 극의 엇갈린 평가에서 완전무결한 하나의 답을 인정하기에는 그의 삶이 너무 복잡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

는 맥아더의 진실을 밝힌다. <플래닛미디어·2만2000원>

▲교사의 전문성, 어떻게 만들어지나=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세 편의 보고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사에 관한 회의’에 제출됐던 국제교원노조연맹 ETI의 보고서는 21세기 세계 사회에서 교원들이 직면한 현실과 고민, 그 해결 방안을 교원 전문성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교사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거부하고 교사들의 자존감, 자기 효능감, 지도력을 증진하는 것은 교사 전문성에 대한 교사 입장을 표현하는 출발점이다. <살림터·1만7000원>

어린이 책

▲매디의 냉장고=가난과 배고픔에 대해 유머와 따뜻함으로 다가서는 그림책. 절친인 애나와 매디는 한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에 가고, 늘 함께 놀지만 애나의 냉장고가 건강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매디네 냉장고는 비어있다. 애나는 매디의 가족이 냉장고를 채워 넣을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약속한다. <씨드북·1만1000원>



이가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들어간다. 무거울 수 있는 주제와 복잡한 인물들 간의 관계를 해맑음과 발랄함, 재치로 풀어내고 있어 추리 동화의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별숲·1만1500원>

▲놀면서 떠나는 세계 문화 여행=고대 도시 로마에서 찾아보는 고대 사람들부터 아프리카에서 만나는 펭귄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느껴보는 겨울 풍경, 미국에서 경험하는 재미있는 할로윈 축제까지, 150여 개의 스티커와 다양한 그림, 게

임, 퍼즐, 미로찾기 등을 하며 세계 곳곳을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린북·1만3000원>

▲바람의 새 집시=자연과 여행,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을 시적인 언어로 빚어냈다. 집시는 작은 까치다. 꿈꾸길 좋아하고, 자유에 목말라하는 재미난 새이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 집시가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혼자 아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마누가 가만히 다가온다. <같이보는책·1만4000원>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3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퇴직하신 분과
귀촌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지식인 고창에 집짓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영이 바위 펜화

완성된 그림 : 가로 65cm x 세로 51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택의 작품.
펜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펜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외벽
시공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